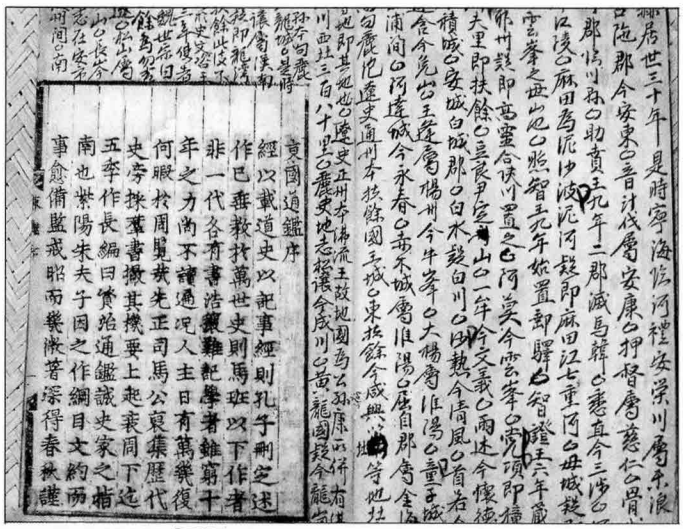
묵향 그윽한 班村文化의 자존심

'고서통' 김경태씨에게 듣는 안동의 世傳漢籍



서애 유성룡의 필적이 남아있는 「동국통감」.

퇴계 이황과 서애 유성룡을 비롯해 영남인재의 절반을 배출했다는 고을 안동은 이조 5백년의 전통문화가 농도짙게 남아 있는 곳. 그래서인지 안동에는 2개도의 전적문화재를 합친 것과 맞먹을 정도의 한적이 보존돼 있기도 하다. 이런 사실은 지난 84년부터 연차적으로 문화재관리국이 실시한 시도별 한적조사에서도 여실히 입증된다.

우리나라 족보의 효시로 알려진 안동 권씨가의 「성화보」가 발견된 이 고장에는 14대 종손으로 이어지는 유서깊은 문중만도 무려 15개가 넘는다는데, 웬만한 집 시렁마다 족보 없는 집이 없다고 한다. 이외에도 고려시대의 호적 등 문화재급의 고문서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보존돼 있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해방전까지만 해도 한학자들이 즐비했던 이 고장의 전통은 그 이후 새로운 역사의 흐름에 쇠퇴하기도 했지만 근자에 들어서서 여러 문중에서 대만 등지로 젊은 학생들을 유학보내는 등 의도적으로 후학을 양성하면서 다시금 그 맥이 이어지고 있다.

10만여점 가운데 문집류가 으뜸

안동의 토박이로 서지학자 천혜봉교수와 더불어 지난 87년 안동지역의 전적문화재를 조사한 바 있는 김경태씨는 그 방대한 양에 우선 놀랐다고 전한다.

"안동에 산재한 한적의 특징적 요소를 꼽으라면 역시 관직에서 물러나 당시의 시대상을 빗댄 작품들로 꾸며진 문집류가 상당량을 차지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또다른 점이 있다면 노론의 책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동을 위시해 봉화·영주·예천·상주 등지에서는 내방가사가 발달돼 있으며 종부들에게 제사의식을 전수해주기 위한 언문집이나 사돈댁에 보내는 인사문인 언문사돈지가 다수 발견된다는 것도 지역의 특수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문·상향문·시가 등이 실린 문집류와 함께 규방에 갇힌 조선조 여인네들의 한이 서린 규방가사의 발달이 내용상의 특징이라면, 중국 문헌을 복사한 필사본이 양적으로 우위를 점한다는 점은 형식상의 특색일 수 있다. 안동이어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문관이 많이 나온 집안과 무관을 배출한 집안의 한적에는 종류의 차이점이 보인다는 것이 김경태씨의 말이다. 즉 문관집안의 경우에는 사서오경이나 문학류의 한적이 대부분인 반면에 무관집안에서는 천문·지리서 등 병사에 관련된 서적이 주종을 이룬다는 얘기다.

이 지역에서 심심찮게 발견되는 전적에는 한방서인 담방문도 더러 끼어 있는데 이것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병치료를 위해 의학서와 민간요법에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 엮은 책들이다. 이런 담방문들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다. 당시에는 어떤 병이 대체로 만연되었는가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게 되는데, 김경태씨에 따르면 아마도 폐병이나 위장병이 안동지역에는 많았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또한 양은 적은 편이지만 점술서인 복서가 조사되기도 한다. 반면에 풍수지리서가 상당량 보존된 것은 물론 조상의 묘를 쓰면서 지관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하지만 그 방면의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유사한 고서들을 대하는 경우가 빈번한 작업이긴 해도 간혹 희귀본을 발견하게 되는 적도 있곤 합니다. 예를들어 4백년전의 것으로 연대추정이 가능한 「수은잡방」이란 책은 당시의 우리 음식문화를 짐작케 하는 요리서로서 각종 술을 빚는 방법과 냉면을 만드는 법, 그리고 음식이나 재료를 저장하고 보관하는 방법이 자세하게 설명된 책입니다."

선조때 씌여진 일기도 발견돼

누구 집에 무슨 책이 있다는 것을 손바닥 보듯 들여다 본다는 평을 듣는 김경태씨의 말을 빌자면 안동의 한적은 무려 10만여점이 족히 넘을 것이란다. 이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개인문집류 중에는 그 의미가 각별한 일기들도 섞여있다.

1500년대에 씌어진 것으로 알려진 「송간일기」나 1910년부터 6·25전쟁 발발 이듬해인 1951년까지의 기록인 「강포일기」 등이 그것들인데 「강포일기」의 경우 그 시기로 미루어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반초서로 발굴돼 아직까지 번역되지 못한채 남아 있다. 선조부터 인조반정에 이르는 40여년에 걸쳐 씌어진 「계암일기」는 세자시강원보덕이란 벼슬을 지낸 광산 김씨 김영의 일기로 가치있는 자료로 인정되면서도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는 한적이다.

이 일기에 얽힌 일화가 한가지 있다. 일제때 식민지통치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 조선총독부는 조선의 민속과 풍속·서지를 연구하였는데, 이 책 역시 조사대상으로 총독부로 반출돼 갔다가 해방되기 닷새전에 되돌려져 하마트면 일본으로 유출될 뻔 했다는 것이다.

번역사업 등 정부지원 시급

대구일보에 재직하던 시절에 고 박종홍교수의 퇴계학 사상강좌를 기사화하면서 서지학에 심취하게 되었다는 김경태씨는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의 한적 소재현황 파악은 끝난 상태지만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난 89년과 87년에 강원지역과 안동지역의 실질적인 조사자가 되었던 그였지만 안동의 경우 필사본에는 미처 손대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가 완료됐고 시기도 국치 이전의 것에만 국한한 것이 못내 미련이 된 것이다. 이제까지 케비넷 속에 차곡차곡 모아둔 자료를 정리해 체계적인 서지학서 한권을 펴낼 욕심도 크지만, 그동안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온 서민복식사에 관한 결실도 보고 싶어

김경태씨.

한다. 이미 120여점의 옛 서민의류를 안동대에 기증한 그는, 지역마다 복식방언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서민복식사는 연구가지가 큰 분야라고 설명한다.

하회탈춤으로 도산서원으로 이름난 고장 안동. 예부터 낙동강을 거슬러오르던 뱃사공들이 이곳의 골목골목에서 울려나오는 책 읽는 소리를 들으며 노를 저었다는 문향 안동의 한적이 그저 먼지가 쌓인 문화재가 아니라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게 하기 위해서는 김경태씨의 다음과 같은 지적을 귀담아들어 둘 만하다.

"전적문화재를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존시키려면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사업이 우선돼야 합니다. 문화재 지정의 선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대개의 한적이 초서나 이두문자로 기록돼 난해한 점을 감안해, 전문연구기관을 마련해서 번역사업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최태원 기자